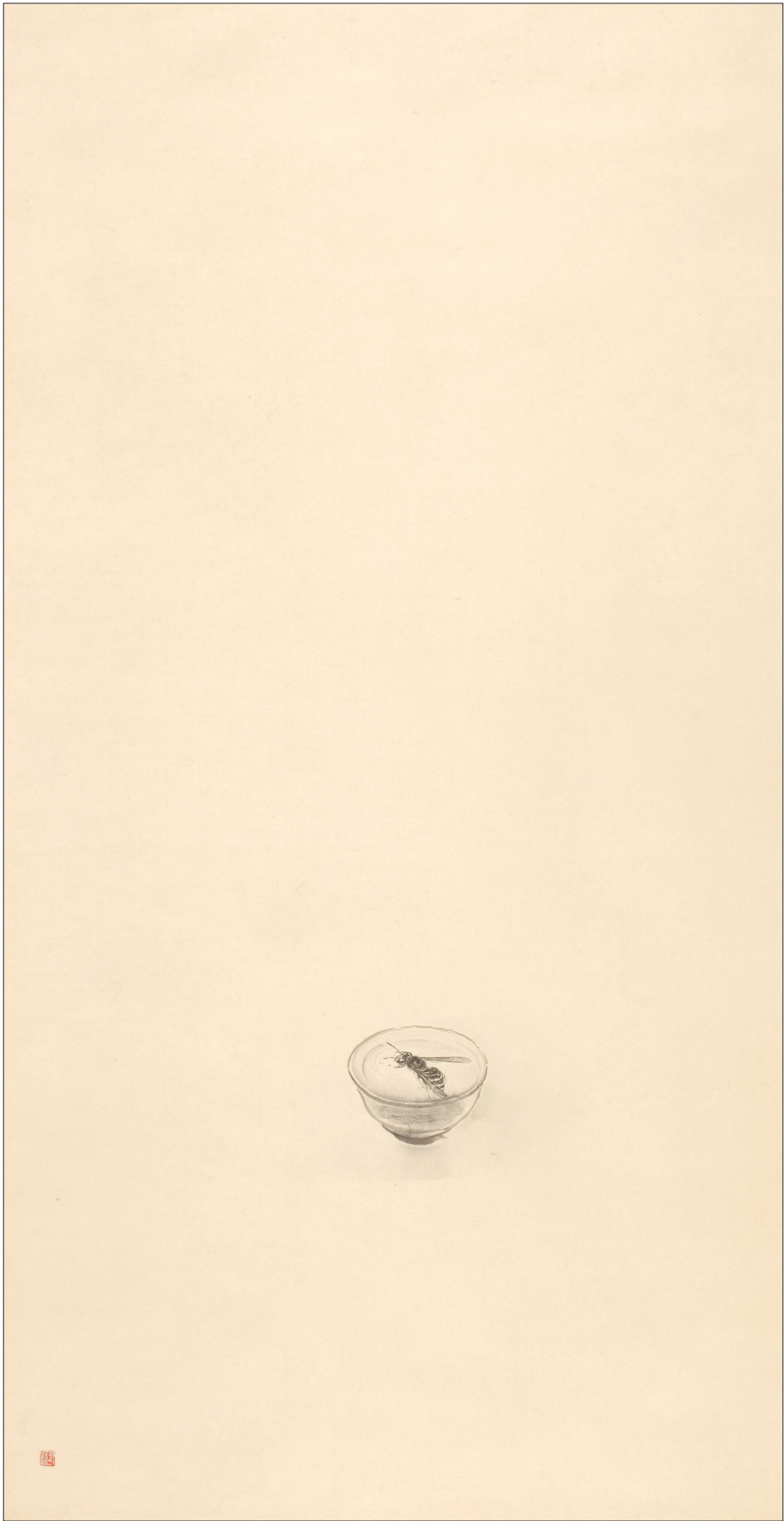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관음 스님 ㉑

법열의 단맛에 차향은 느껴지지 않고...



단맛, 140X73cm, 종이에 수묵, 2015, 작가소장. 관음 스님과의 대화에 열중한 사이 차가 식어버렸다. 차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스님께서는 "황악산 중턱에 사는 장수말벌이 와서 찻잔 속에 있는 차의 단맛과 맑은 색을 다 빨아먹고 표표히 날아갔다"고 하셨다.

관음 스님께서 물으셨다.
 “김 화백,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고 왜 그리나요?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나는 원초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스님의 질문은 예술 창작의 기본 원리를 꿰뚫고 있었다.
 “저는 조선의 뒤장 넘새를 그리고자 합니다. 내가 단고서 있는 이 땅의 모습과 이 땅에서 숙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정신을 그리고 싶습니다. 불의와 억압, 그리고 압제를 뚫고 잃어서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대중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땅의 모습을 내가 추구해야 할 예술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화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에서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도록 말미에 수록된 작가노트 내용을 중심으로 스님의 질문에 성심껏 답했다. (작가노트는 시공사 아르비방 김호석 도록(1994)과 샘터화랑 전시도록(1994)에 수록되어있음) 내 말이 끝나자 스님께서 수초(守初)라

살이 통통한 하얀 껍데가 툭툭 터지며 수북이 쌓이는 모습에 환희가 일터군요. 이외에도 참깨를 볶아 기름을 짜면 허를 부드럽게 하여 마음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푸성귀 등 채소를 무칠 때 사용하면 천연 구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참깨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교 역시 공부할수록 생각이 증식되는 것이나 깨닫게 되면서 얻는 환희심이 참깨에 담긴 의미와 일견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말씀 드렸다.
 스님은 내 말이 끝나자 마삼근을 함께 세 근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빙그레 웃으셨다. 그 웃음은 마치 이가 나지 않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미소 같이 아름다웠다.
 이어 스님은 내게 “너무 생각이 복잡합니다. 글자는 약속이지만 사고가 유연하게 넘나들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김 화백은 너무 사변적이군요. 자신에 갇히면 자신도 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스님의 조언에 부끄러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든 것은 제 이름 값을 하면서 생을 영위해갑니다. 아니 이름을 가지지 않은 생물·무생물조차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 느꼈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며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김 화백의 말은 곤충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곤충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층, 해충의 생각을 뒤집으면 인간은 그 반대로 해로운 동물이 되는 셈이지요. 그런 생각을 지우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아자 싶었다. 스님의 말씀은 내게 큰 가르침이 됐다.
 스님이 입적하셨다는 전갈을 받고 다비식 하루 전 중암을 찾았다. 스님이 머무시던 방에서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은 시자스님의 배려였다. 나는 큰 여름을 잃은 슬픔에 괴로웠지만 스님의 육신을 보는 순간 스님과 함께 한 시간과 공간이 몸 속 세포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감사한 마음이 슬픔을 눌렀다. 공교롭게도 나는 스님의 가시는 날 정수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김천시 내 병원에서 6바늘을 꿰매고 붕대를 붙인 채 밤새 다비장

벌이 사람보다 낫다는 농담 한마디에도 무생물조차 존재 의미있으며 정색하시던 스님 분별력 뛰어넘는 '유연한 사고' 강조 20년 지난 지금도 스님의 가르침 기억



는 호를 지어 주시고는 “처음의 뜻을 지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 그리고 보니 ‘수초’라는 법명을 쓴 이가 있었습니까. 중국 스님인데 부처가 무엇이나고 묻는 질문에 ‘마삼근(麻三斤)’이라 답을 했던 분이지요.”
 나는 성철스님의 화두도 마삼근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마삼근을 두고 스님과 나 사이에는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는 스님께 여쭙었다.
 “왜 부처가 참깨 세 근입니까?”
 순간 스님은 화들짝 놀라며 “왜 마삼근을 참깨 세 근으로 보느냐”고 되물으셨다.
 “저는 마(麻)라는 글자가 삼베 재료인 삼과 참깨 그리고 마마자국을 의미한다고 배웠는데, 불법과 연관짓는다면 삼베가 아닌 참깨와 관련이 깊다 생각합니다. 말린 삼 3근은 삼베를 13자 정도 밖에 짜지 못합니다. 길이로 봐서 별 효용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참깨는 흙, 되로 계량하지만 중국에서는 근 단위로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깨 1개를 심으면 하나의 데에서 2백여개 이상의 씨가 수확됩니다. 참깨를 털 때 얼마나 좋으면 ‘깨 쏘아지듯’이란 표현을 했을까요? 참깨 농사를 지어보니

공급한 바를 여쭙었다.
 “스님 그러면 불교란 글자에 매달리고 끌려 다니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녹차를 마시며 논쟁은 계속됐다.
 이야기는 종교와 동서양 철학을 넘나들며 흥미진진하게 이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나는 녹차가 앞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열중했다. 논쟁이 한 풀 꺾여 정리 될 즈음 차를 입에 댔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차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스님께 무슨 차이기에 이렇게 무미한지 여쭙었다. 이에 스님께서 머리를 뒤로 젖혀 피안대소 하시며, “김 화백이 하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황악산 중턱에 사는 장수말벌이 와서 찻잔 속에 있는 차의 단맛과 맑은 색을 다 빨아먹고 표표히 날아갔는데 그걸 보지 못한 모양이지요?”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스님의 말씀에 “황악산 벌은 차 맛도 다 아는 모양이네요? 참, 사람보다 낫네요”라고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 그러자 스님의 표정은 일순간 심각해졌다.
 “김 화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름을 가진 모

를 지켰다. 스님이 가신 날, 머리에 난 상처는 스님과의 깊은 인연을 더욱 강렬하게 기억하는 계기가 됐다. 밤새 도록 이글거리며 타는 불 소리가 마치 스님의 독백처럼 귀를 때렸다.
 “삼이나? 참깨나? 아니면? 뭐냐? 그 말이 가지는 분별력의 벽을 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언젠가 이 말을 알아들을 때 무릎을 탁 치며 세상을 얻는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요.”
 스님께서 입적하신지 올해로 10년째다. 현실을 벌에 빚대어 표현할 내용이 있어 벌을 그리려고 밑그림을 그린다.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안 그려지고 불현듯 스님의 말씀만이 귓전에 맴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황악산 중턱에 사는 장수말벌이 찻잔 속에 몸을 적서 차의 맑은 향과 색을 다 빨아먹고 날아갔다.”
 스님, 스님 말씀대로 황악산 장수말벌이 날아와 찻잔 속에 들어와 차향을 모두 빨아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님께서 설하신 말씀이 내도 귀하고 귀해 그 법열의 단맛에 차향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까?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도량석, 종승 ■ 예경: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패불이운), 대령, 관옥, 율호계(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전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시,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사시, 구병사시,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오공양, 유원승, 요점작법 ■ 사 물: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사다리(타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석범은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수시모집)
 ■ 수업시간: 초 급 과 정: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고급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상시모집

8. 문 의 처: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생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전문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방 재수 운반, 고소 연동 설치, 전차반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